

Hi Seoul 페스티벌 2005

# 서울의 5월은 축제 한마당

지난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 서울 전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를 비롯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행사는 수도 서울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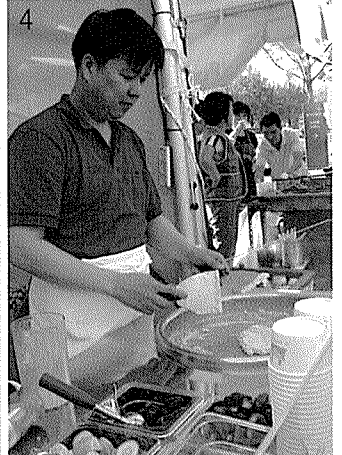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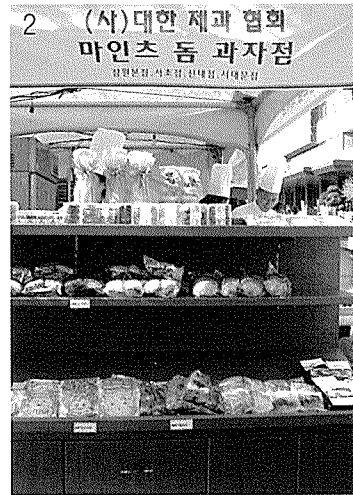
5일 동안 펼쳐진 열기의 축제 현장으로 찾아가 봤다. 글과 사진 정술이 기자

지난 4월 30일 화려한 전야제를 시작으로 5월 5일까지 6일 동안 서울 시민의 축제 'Hi Seoul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세 돌을 맞이한 Hi Seoul 페스티벌은 '서울 마니아가 만드는 초록빛 축제'를 지향하면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필 콘서트부터 '세계의 리듬', '청계천 미리 보기', '컴퓨터 프로그래밍쇼' 등 메인행사와 크고 작은 부대 행사가 어우러져 알차게 진행됐다. 서울시청 위생과는 불량 식품 전시를 마련해 보존료(방부제) 불법 사용 식품, 허가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 등을 전시하고 불량 식품 신고전화 등을 홍보하는 등 식품 위생에 관한 주의를 촉구했다. 서울광장 주변에서 진행된 서울사랑음식축제는 서울 전통 음식을 비롯해 팔도 비빔밥, 떡 등 먹거리 한마당이 펼쳐져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국관광대학, 혜전대학 등은 대학생 동아리 마당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널리 뽐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사랑 음식축제'에 참가해 Hi Seoul 페스티벌의 흥을 돋웠다. (사)대한제과협회를 대표한 마인츠돔과자점은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모듬 케이크, 샌드위치, 호두크림치즈빵 등 인기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여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우주 산업에서 쇼케이스 및 냉동기기 등을 협찬한 이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서울 서초구 서초1동사무소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됐다. 행복한 세상 김상우 전무는 딸기, 바나나 등 신선한 과일을 이용한 철판아이스크림을 즉석에서 선보여 시민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마인츠돔과자점 잠원본점 홍종흔 대표는 '제품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싼값에 판매해도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아 만족스럽고 서울 시민의 축제한마당에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가정의 달 5월에 열린 하이 서울 페스티벌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 등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뤄 16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고 외국인 관광객의 호응도 높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연일 인산인해를 이뤘던데 반해 지나친 상행위나 일부 행사 차질, 극심한 교통 혼잡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적돼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와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서울사랑음식축제를 함께한 마인츠돔 홍종흔 대표와 직원들은 3일 내내 활짝 웃는 얼굴로 시민들과 축제를 함께했다. 2 하이서울 축제 현장에 제과점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3 요리경연대회에서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혜전대학 학생들이 직접 수제 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했다. 4 즉석철판아이스크림 전문 회사 '행복한 세상' 김상우 전무가 철판에 즉석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지나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